장정에 이어 본문편집도 팬시화 추세

편지 달력 등 이용한 '희한한 책들' 서점가 진출…'얄팍한 상술' 비판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겉표지 중심으로, 예쁘고 앙징스럽게 팬시와 경향을 보이던 책들이 짧은 시간을 두고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눈을 즐겁게 하는가 하면 독특한 향기를 발산해 후각을 건드리는 책도 있다. 본문을 낱장의 엽서형태에다 수록한 책은 엽서로도 활용이 가능해 책의 기능이 한층 다양해진 셈이다. 이러한 팬시화 경향의 책은 읽은 후 책꽂이에 꽂아두던 기존의 보관형태를 파격적으로 깨뜨리기도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편집을 접목시켜 장정과 책의 활용면에서 두드러지던 팬시화 경향은 본문편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갖 변화"를 시도하던 겉표지만큼이나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반영, 본문을 이색적으로 치장한 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색다른 맛' 느끼게 하는 본문편집

본문 편집 중에서도 본문에다 바탕색을 입힘으로써 이색적으로 보이게 한 단행본이 있다. 사계절에서 펴낸 현대인물사 시리즈가 바로 그것인데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시리즈는 「장준하」(김민수), 「석주명」(박상률), 「김순남」(김별아), 「김창숙」(정종묵)으로 전부 4권이다. 이들 책은 인쇄과정에 있어 각기 다른 바탕색을 지정, 양면인쇄를 함으로써 독특한 시각효과를 내고 있다. 여느 단행본과 다를 바 없는 서적지에 본문 활자는 짙은 청색을, 바탕색은 이 활자보다 밝은 노란색 계통의 색을 쓰고 있다. 각 권마다 서로 다른 바탕색을 쓰고 있는데, 정치인이며 사상계를 창간한 장준하의 생애를 정리한 「장준하」의 경우, 본문의 앞면은 고명도의 노란색 바탕이고 그 뒷면은 서적지 원래의 색인 미색 바탕이다. 사계절의 한 관계자는 "장정에만 참여하던 디자이너들이 본문편집에도 참여함으로써 바탕색을 전략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고 독자들이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다면서 제작경비 문제에선 "단행본에서 흔히 쓰는 서적지에 바탕색만 따로 지정했기 때문에 인쇄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본문을 테두리로 감싼 형태의 책으로 「에로티즘」(J. 바타이유 지음, 조한경 옮김, 민음사)과 「8시 91분」(이신우 지음, 웅진출판) 등이 눈에 띈다. 성철학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에로티즘」은 겉표지와 본문편집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겉표지는 빨간 바탕에 흰색 제목을 넣었으며 본문의 가장자리는 길이 2.5cm의 검정색 테두리를 둘렀다. 책표지를 덮은 상태에서 보면 붉은 색과 검은 색만 눈에 띈다. 「에로티즘」을 구입한 어떤 독자는 "禁書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말하기도. 의상디자이너 이신우의 에세이집인 「8시 91분」도 비슷한 형태의 띠를 두르고 있다. 저자를 부각시키는 느낌으로 섬유의 단면을 확대한 디자인의 테두리로 본문을 감싸고 있다. 겉표지도 본문에서 나타난 동일한 디자인을 카키색과 검정, 흰색 위주로 인쇄해 겉표지와 본문의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장정 뿐만 아니라 본문편집에도 북디자이너가 참여해 팬시화한 책은 동양고전에서도 나타난다. 민음사가 펴낸 「論語新解」 「孟子新解」는 겉표지와 본문이 황색 격자무늬로 이어지는 디자인이다. 엷게 깔린 격자무늬 중앙에 본문내용을 실어 마치 고서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서점가에 편지나 달력의 형태를 원용한 '희한한 책'들이 등장해 청소년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책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책도 나타나고 있다. 일력의 기능이 첨가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인 '캘린더 북'이 그에 걸맞는 책이다. 도서출판 지식공작소가 독힐 하렌베르크 출판사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선보인 캘린더북은 모두 4종. 「세계미술 3백65일」 「세계음악 3백65일」 「세계영화 3백65일」 「연대기 3백65일」이다. 하렌베르크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엮어낸 이 책은, 유머와 알기 쉬운 해설기법을 사용해 각각의 예술세계와 역사를 다루고 있다. 말그대로 캘린더와 책을 혼합한 '캘린더 북'은 독서환경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간단한 내용이나마 하루에 하나씩 규칙적으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력은 선진국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으나 형식상 책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렌베르크의 캘린더 북은 일력의 형태를 띠면서도 담고있는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독서효과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책은 눈으로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엽서, 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 선보이고 있다. 진선사가 펴낸 「느닷없는 우박떼」는 미국의 대표적 화가인 케이츠 해링의 그림과 국내 시인 장석남의 글이 수록돼 있는데 각 장을 엽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다. 일기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쉘 실버스타인 지음,

아인슈타인의 꿈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

상대성 이론 탐구과정 소설化!!

지금까지
어떤 소설가도,
어떤 물리학자나
철학자도
시간의 본질과
그 열린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참다운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 –
시간은 흐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
시간이 갑자기 멈춰진다면?
즐거운 시간은 왜 빨리 흐르고
지겨운 시간은 왜 느리게 흐르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
시간은 단지 '기억'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앨런 라이트멘/권국성 옮김/값 4,800원

서울북맵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이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 · 도서관에
관한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값 4,500원 조경환 편저

서점 · 도서관 완벽가이드.
•서점가 지도
•대형서점 가이드
•전문서점 가이드
•대형도서관 가이드
•전문도서관 가이드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장정 뿐 아니라 본문편집도 팬시화 경향을 보이는 도서가 늘고있다. 북디자이너들은 본문편집에도 참여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접목시키면서 책의 '얼굴 치장'과 '몸치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같은 팬시화 경향은 편집의 다양성을 자극한다는 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출판사에선 값올리기의 방편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종이연)는 우화로 잘 알려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편만이 실렸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실린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으나 원고지 4페이지 밖에 되지않는 짤막한 우화를 책 전반에 걸쳐서 실은 상태. 이 책은 본문을 두장 걸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한 문장씩 걸려있으며 그나마 한 문장도 없는 본문은 농도가 옅은 파스텔톤의 컬러와 삽화로 메우고 있어 "잘만든 일기장"을 방불케 한다. 우선 본문의 레이아웃이 기존에 봐왔던 책의 그것과 많이 달라 마치 책이 아닌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행본과 맞먹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외에도 독특한 본문편집으로 눈길을 끄는 「김수희의 눈물 한방울」(행림)과 「그린핀 & 사비네」(닉 밴톡 지음, 김영사)가 있다. 먼저 「김수희의 눈물 한방울」은 책 중간에 40쪽 정도의 '비밀이야기'가 아예 봉해져 있어 독자가 직접 책을 뜯어보게 만들었고 '비주얼 소설'이란 부제가 붙은 「그리핀 & 사비네」는 책 중간중간에 아예 그림엽서와 편지를 실물 크기로 붙여 놔 봉투속에 있는 편지를 꺼내봐야만 줄거리가 통한다. 닉 밴톡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한 이 책은 대형서점의 외서코너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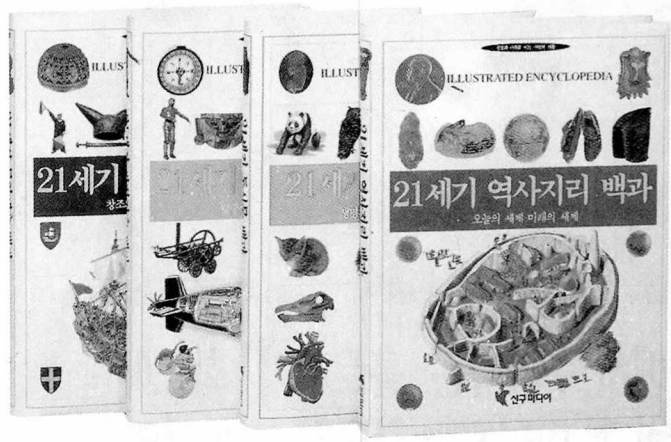
책의 팬시화 경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을 문지르면 향기가 나는 책도 있다. 후각을 통해 음미하도록 한 이 책은 「꿈꾸는 여자는 향기가 난다」(한나라)로 책 제목처럼 안쪽 표지를 화이트 로즈 향으로 코팅처리해 이부분을 문지르면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

기획 당시 내용을 좀더 살리려는 의도로 편집이 독특해진 책들은 문제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편집의 다양성을 자극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책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책을 "친근한 대상"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숨어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켠에선 책내용이 "함량미달"일때 자구책인 특이한 편집과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독자들을 현혹시켜 판매에 연결시키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 부담스러운 제본비에도 불구하고 팬시화 경향의 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논란의 소지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책을 두고 책의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은희 기자

어른도 함께 보는 어린이 그림백과

신구미디어 펴냄 「21세기 백과」 전4권



신구미디어가 영국 달링 킨더슬리사에서 발행한 「Children's Illustrated Encyclopedia」를 완역해 전4권으로 펴냈다. 이 책은 아동물 출판으로는 권위를 자랑하는 달링 킨더슬리사가 전역량을 동원해 펴낸 백과사전. 신구미디어에서는 서구적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바뀐 경우, 그리고 새로운 학설이 제기된 경우 그에 맞게 원문을 수정했으며, '독립운동과 분단' '한국의 건축' '한국화' 등 한국 관련 20여 항목을 새로 추가 제작했다.

제1권 「21세기 동식물백과」에서는 전세계 각 대륙의 특산종을 비롯해 수천종의 동식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그림과 사진을 중심으로 동식물의 습성, 특성, 인간과의 관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꾸몄다.

제2권 「21세기 과학기술백과」는 지구, 기상, 전자기, 컴퓨터 등 어렵고 까다로운 과학기술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저학년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성인들에게는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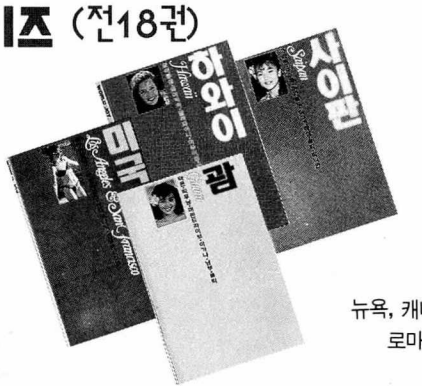
제3권 「21세기 문화예술백과」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춤·음악·문학에서부터 오페라·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짤막하면서도 핵심을 캐는 문장 속에 담고 있다.

제4권 「21세기 역사지리백과」에서는 21세기의 참다운 국제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세계 여러 나라의 풍습과 사회상, 지리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을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 특히 변화된 동구권과 독립국가연합의 지도와 국기, 우리와의 관련 사항을 소개함은 물론 한국의 역사와 지리까지도 세계화하고 있다.

전체 네 권으로 구성된 이 백과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권이 각각의 내용을 다루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연작'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예를들어 식물의 '꽃'이란 항목이 천체의 '별'이라는 항목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연결의 고리는 가족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할 듯 하다.

이젠 안내자 없이 여행길을 떠난다!

「얼드 조이」 시리즈 (전18권)



포켓 여행 가이드북의 특징
- 다양하고 구체적인 최신정보.
- 각권 올 컬러 700여 점의 사진.
- 지도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 알짜 장소만 뽑아 콤팩트한 편집으로 책의 부피를 줄였다.
- 테마별 정리, 보기 좋은 비주얼 가이드 북.

목적별 지도 중심의 포켓 해외 여행 가이드북
미국 서해안, 사이판, 하와이, 괌 4권 동시 출간!!

계속 출간 예정!
파리, 런던, 북경 · 상해, 뉴욕, 캐나다, 호주, 홍콩 ·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로마, 스위스 ·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

• B6 변형판/152~160면/각권 값 5,000원

평화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50번지 전화 734-3341~3

'93 문화 체육부 추천 도서

韓國名山記

한국 명산에 얽힌 역사, 지리 문화 답사기행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필두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한국 명산에 얽힌 역사, 지리, 문화의 자취를 10여 년간 집필 끝에 완성시킨 대작, 정교한 필치와 고증이 돋보이는 산의 역사 기행서로 절묘한 어휘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산을 좋아하는 분의 서재를 빛내줄 책.

• 김장호 교수 지음/양장본 426면/값 16,000원